

사회



광주시 북구 두암3동 주부들로 구성된 주부순찰단이 경찰과 함께 두암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예방 선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교육청 징계 교직원
작년 상반기에만 300명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만 300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을 징계하거나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3개 기관·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의계약 비리, 부적절한 행정 업무 처리 등 혐의로 299명의 교직원을 적발했다. 이를 토대로 징계부가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대상으로 분류된 교직원은 20명, 경징계(감봉·견책)는 모두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방과후 감사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한 초교 교장은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파면됐다.

중·경징계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26명은 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 불면경고, 경고,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공사수의 계약 비리와 행정 업무 부적절 처리에 연루된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으로, 인사에서 사실상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없는 대규모 인원이 감사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청이 온정주의의 감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 제된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관련 인사를 처벌함으로써 본보기를 삼으려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학교 정 수기 납품과 관련해 교육지원청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이 일 자 공사 수의계약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회도 학교·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비 위 관련자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녀 지킴이’ 엄마가 나섰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워킹 맘’ 박모(34)씨는 지난해에 이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입후보했다.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야 한다. 사서 도우미, 자모회, 당번 배식 등 여건이 되는대로 참석하려고 애쓴다. 그녀는 학부모 배구동호회에도 열심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주부 김모(43)씨는 최근 동에서 운영하는 주부순찰단에 가입했다. 자원 봉사 성격을 띠지만 엄마들과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 또 학교폭력 등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선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참여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면서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엄마가 대세다.

12일 광주시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신년이나 학기 초에 인 원 맞추기도 힘들었던 녹색어머니

학교폭력 사회 문제화
학운위·주부순찰단 등
학부모 단체활동 급증

회, 자모회, 엄마순찰대 등의 구성이 순조롭고 그동안 참여에 소홀했던 워킹 맘까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한 단체나 협의회의 수와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광주 북구의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단원 수가 늘어 850여명이 된 순찰단은 초기 주민생활불편 신고 등 환경개선사업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초등학교와 주변 골목길, 공원에 대해 합동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모회와 독서모임 등도 학부모들의 참여가 늘면서

활발해지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한 교장은 “학기초에는 으레 자모회와 방과후 활동 참여를 독려했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고 스스로 모임을 꾸려가려는 의지도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의 무리한 참여가 학교 교육에 혼란을 줄 수도 있으며, 경찰과 관공사의 무분별한 관여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내 아이 지키기식 참여는 오히려 불신을 키우기 마련”이라며 “학교와 협력해 올바른 참여를 고민하고 좀더 내실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곡성에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등 적응 교육 ... 전국 확대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남에도 설치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따라 최근 개교한 공립대안학교인 곡성 한울고에 예비학급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은 회화에 따라 예비학교에서 6개월 가량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받고 정규 학교에 입학한다. 광주에서는 새날학교가 지난해부터 예비학교를 운영해 왔다.

올해 전국 26곳으로 확대된다.

한편, 교과부가 이날 발표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다문

화학생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등록부터 국적취득, 학교입학 안내,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다문화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도 집중 양성된다.

우리말에 서툰 다문화학생을 돕기 위해 단계별 ‘한국어교육과정’도 도입된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다문화학생을 위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강사를 불러주고 맞춤형 멘토링 학습 지원도 한다.

전남지역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말 기준 3236명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다. 광주는 모두 864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6분 / 해질 18시 38분
달맞이 18시 38분 / 달뜨기 09시 42분

꽃샘추위 풀러

남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0℃
목포	맑음	-2/8℃
여수	맑음	-1/8℃
나주	맑음	-4/10℃
완도	맑음	-2/9℃
구례	맑음	-5/10℃
강진	맑음	-4/9℃
해남	맑음	-5/9℃
장흥	맑음	-5/10℃
순천	맑음	-2/11℃
영광	맑음	-5/8℃
진도	맑음	-3/8℃
전주	맑음	-4/9℃
군산	맑음	-4/7℃
남원	맑음	-6/10℃
홍산도	맑음	0/7℃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주간날씨

날짜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12	3/13	5/11	6/14	6/12	4/10

세종고 평준화고 전환

내년부터 여고로 개교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세종고가 2013년부터 평준화 여고로 전환된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우수교사 확보와 법인전입금 출연 등 조건부 승인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 13일 학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여고전환 조건인 법인전입금(15억원) 출연과 수익용 기금재산 확보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MBC 노조 파업 동참

광주·전남기협 지지 성명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정영팔)가 12일 언론사들의 잇따른 파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퇴의 당사자들로서 지목된 경영진은 사상 초유의 언론인 집단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대 해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광주MBC 노조는 이날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 광주·전남지부도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리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증-9061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건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런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한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화관 건너편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집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허(心脾兩虛), 심신불교(心腎不交), 위중불화(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느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공황장애의 치료는 진단과정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인 치료방법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정동 추신화관(추신화관)
 <승정리> <동고개>
 경희한의원
 ※ 주차장 원비 ※ (건물 옆 주차장 건너편)